
 인천광역시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2년 7월 10일(일) 총 8매		
담당 부서	재정관리 담당관	담당자	• 재정지원팀장 서용성 ☎440-1661 • 담당자 민경화 ☎440-1664 심태수 ☎440-166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주말 경제부총리 만나 국비 확보 잔걸음**  
 - 영종~강화 도로 건설 등 7개 주요사업 국비 1,362억 반영 건의 -  
 - 문학C~공단고가교~서인천C 지하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은 예타 통과 등 요청 -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후에도 인수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쉼 없이 정부 인사와의 만남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휴일 없는 총력전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광역단체장으로는 가장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갖고,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앞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6월 28일에도 시·도지사 당선인 중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인천의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금이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예산(2차)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202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첫 행보를 시작한 유 시장은 시 주요 현안사업 7건(현장건의 4건, 서면건의 3건)에 대해 국비 1,362억 원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면제) 등 사전절차 사업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건의한 사업은 ①영종~강화 도로 건설(150억 원) ②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제물포 도시재생 및 디지털 인력양성·실증](107억 원) ③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642억 원) ④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3억 원) 등 총 4건이다.

※ ( ) : '23년 국비 요구액

①<영종 ~ 강화 도로 건설>은 도서·접경지역 주민 접근성 개선과 남북협력을 위해 영종에서 강화를 연결하는 14.6km(총사업비 4,764억 원)의 도로건설 사업이다.

※ [1단계 구간] : 영종 ~ 신도 3.2km[1,264억 원]

[2단계 구간] : 신도 ~ 강화 11.4km[3,500억 원]

시는 1단계 구간의 2025년도 적기 준공을 위해 내년도 국비 150억 원 반영과 2단계 구간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 지원을 요청했다.

②<제물포 도시재생 및 디지털 인력양성·실증> 사업은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제물포역 일원에 소프트웨어(SW)앵커시설 신축과 디지털 거점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제물포 Station-J’가 선정돼, 구축비 180억 원(국비)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제물포 지역을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올해 소프트웨어(SW) 진흥단지 지정과 더불어 내년도 국비 10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

③<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은 캠프마켓을 공원, 도로 등으로 조성해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환공여구역 지가상승 및 공원 면적 증가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 642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④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위치해 신종 감염병 해외 유입 위험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큼, 해외유입 감염병의 침범 역할을 할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국비 지원 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면제) 등 사전절차의 조속한 이행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 (예타 통과 등)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예타 통과) ▲GCF 콤플렉스(Complex) 조성(예타 면제)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와 국가 상위계획 반영 등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확립을 위해 확

고한 경제 도약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시는 그 어느 때보다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등 재원조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은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예비타당성 문제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과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인천은 경쟁력과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로서 인천이 발전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총 5조3,500억 원\*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부처 사업설명,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통해 목표액 이상의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 국고보조금 4조 5,000억 원, 보통교부세 8,500억 원

유정복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민선8기 주요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전략적 공조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관련사진

<참고> 1. 인천광역시 건의사업

2. 영종~강화 도로 위치도

3.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 위치도

<관련사진>



참고1

인천광역시 건의사업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소관 부처	'23 요구 (국비)	건의내용
1	영종~강화 도로 건설 (총 4,764)	행안부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영종~신도) '23년 국비 150억원 반영</li> <li>2단계(신도~강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후 예비타당성 면제 또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li> </ul>
2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 (제물포 도시재생 및 디지털 인력양성·실증) (총 833)	국토부 과기부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 진흥단지 지정 및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을 위한 '23년 국비 30억원 반영</li> <li>H/W 구축,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한 '23년 국비 77억원 반영</li> </ul>
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총 10,333)	행안부	6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환공여구역 지가상승 및 공원 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23년 국비 642억원(토지매입비) 반영</li> </ul>
4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총 449)	질병청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및 '23년 국비 23억원 반영</li> </ul>
5	문학IC~공단고가교~ 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 (총 8,241)	국토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고가교~서인천IC) 예타 조사 통과 지원 및 '23년도 국비 50억원 반영</li> <li>(문학IC~공단고가교)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li> </ul>
6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총 2,733)	산업부	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타 조사 통과 지원 등</li> </ul>
7	GCF 콤플렉스(Complex) 조성 (총 2,634)	산업부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기구 전용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주도 사업 추진</li> <li>예타 조사 면제 및 '23년 국비 87억원 반영</li> </ul>



## 영종~강화 도로 위치도



문학C~공단고가교~서인천C 지하도로 건설 위치도

